월요광장

꼰대는 가라!

문 요 한
정신과 전문의

낮 시간인데 중학생인 큰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다. 두어 시간이 넘어가자 스멀스멀 잔소리가 올라온다. 불편한 심기를 담아 불러 본다. “아들! 뭐해?” 대답이 없다. 재차 묻는다. “뭐 하냐고?” 아들은 고개도 안 돌리고 대답한다. “아무것도 안 해!” 나는 곧장 되묻는다. “왜?” 질문이 짧아서인가. 돌아오는 대답도 짧다. “그냥!” 이쯤 되면 슬슬 약이 오른다. “그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뭐라도 하지 그래!” 아들이 대답한다. “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나는 씨도 안 먹힐 이야기로 응수한다. “시간은 중요하잖아.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되지.” 여기서 그냥 물러나면 중2가 아니다. “누가 몰라? 그래도 한 번씩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아빠는 안 그래?” 맞다. 나 역시 그러지 않는가! 뭐라고 대답하기 곤란하다. 그 정도에서 말았어야 하는데 말문이 막힌 나는 눈을 부라리며 대뜸 소리를 지른다. “이 자식이! 어디 아빠한테 또박또박 말대꾸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아들은 마지못해 일어나며 분노의 눈초리로 나를 본다. 부자간의 대화는 또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다.

화를 내고 나자 금방 후회가 밀려온다. 명색이 정신과 의사인데도 사춘기 아들과의 대화는 늘 쉽지 않다. 내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다고 해 보지만 대화는 겉돌기 일쑤이다. 의도와 결과가 영 딴판이다. ‘나는 멘토 같은 자상한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왜 현실은 점점 꼰대 같은 아버지가 되어 가는 것일까?’ 분명히 나의 어떤 면이 아들에게 불편함과 거리감을 주고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아들과의 대화는 순수하지 못하다. 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대 때문이지만 나의 경우에는 다소 지나친 면이 있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나의 생각을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설득해 왔으니까.

아들 녀석이 중학생이 된 후로는 특히 설득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설득은 쉽게 강요로 바뀌곤 했다. 그냥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명령조가 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잘 감춰 왔던 내 안의 꼰대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거 참! 내가 너무 싫어하는 모습 아닌가! 나이나 권위를 앞세워 복종을 강요하고,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 드는 그 일방통행.

요즘 ‘아재’라는 말이 유행이다. 이는 젊은 사람들과 코드가 맞고 대화도 잘 통하는 남자 어른들을 일컫는 호칭이다. 즉, 청춘들에게 꼰대가 불통의 상징이라면 아재는 소통의 상징이다. 그렇기에 남자 어른들은 아재이기를 소망한다. 나이 든 직장인의 경우에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애써 젊은이들의 관심사에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옷도 젊게 입으려 하고, 어설프지만 유행하는 아재개그를 흉내 내 보기도 한다.

하지만 아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아재가 되는 것일까? 사실 대부분의 꼰대들은 자신이 꼰대임을 잘 모른다. 마치 심한 음치가 스스로 음치인 줄을 모르는 것과 같다. 심지어는 음치인 데도 노래를 잘 부른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다들 꼰대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는 아재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그러나 꼰대를 우리 사회 불통문화의 상징으로 본다면 굳이 남자 어른에 국한시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에 꼰대는 널려 있다. 싫다는 데도 술을 강요하는 대학 선배는 ‘젊은 꼰대’이고, 자녀의 일상생활 모든 것을 관리하는 헬리콥터 맘은 ‘엄마 꼰대’이며, 4년 동안 귀를 닫고 권력을 사유화시킨 박근혜 대통령은 꼰대 중에서도 ‘왕꼰대’이다.

그리고 주변에는 걸핏하면 호통을 치는 노골적 꼰대도 있지만 점잖은 말투로 인생 설교를 하는 은밀한 꼰대도 많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도나 판단이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느끼느냐이다. 나는 관심과 조언으로 한 말이지만 상대에게는 간섭과 참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찔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찔리지 않는 사람들 역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꼰대 성향’이 있는데다가 우리는 오랜 군사독재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꼰대문화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꼰대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난 꼰대가 아니야!’라는 섣부른 결론을 내리거나 ‘난 꼰대라는 소리는 안 들어야지!’라는 결심을 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언제 누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꼰대 성향을 드러내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안팎의 어둠이 물러날 때까지 촛불을 들 것이다. 꼰대는 가라!

법조칼럼

성공에서 행복으로

염 우 영
광주지법 부장판사·숲해설가

조금 짜증이 나시겠지만 이왕 이 글을 읽으시는 김에 다음 주관식 문제를 좀 풀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당신은 누구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쉽게 대답을 하셨나요. 그럼 다행이구요.

하지만 이 질문을 받은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 보거나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답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부모 세대 또는 우리는 ‘행복’이 아닌 ‘성공’이 삶의 목표인 세상을 살아왔거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신의 성공을 통해 가문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목표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러분은 성공해서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성공을 하지 못해서 불행하신가요.

이 시대 전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다고 단정하지는 못할 듯합니다. 여러분은 주위에서 행복해 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고 계신가요. 만약 전반적으로 불행한 우리 세대가 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성공한 자가 행복한 자이다” 또는 “행복하기 위하여 성공하여라”는 취지의 시대정신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준다면 그것은 “너희의 대부분은 불행하여라”라는 명제를 후손들에게 떠안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한 번 살고 죽을 인생이라면 그 삶의 목표를 ‘성공’이 아닌 ‘행복’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시대정신 또는 사회적인 페러다임을 ‘성공’에서 ‘행복’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우리가 사는 자연으로 눈을 돌려 볼까요. 무등산에서 가장 키 큰 나무만 행복할까요. 장담컨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무등산의 저 수 없이 많은 나무들, 풀들이 그토록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만들어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으나 공통분모는 아마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정의를 전제로 위와 같은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정의가 맞다면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은 ‘히틀러’일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거의 이루어낸 사람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아니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성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웃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어라”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 전에 혹시 처음에 제가 낸 주관식 문제가 너무 어려우셨나요. 그런 것 같아서 다음의 객관식 문제를 준비했답니다. “언제 행복하여야 할까요? ①어제 ②지금 ③내일”, “어디서 행복하여야 할까요. ①그곳에서 ②여기에서 ③어딘가에서”,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까요. ①불행하다고 생각한다 ②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좀 쉬우신가요. 그렇습니다. 답은 모두 ②번입니다. 연결하면 결국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셨으면 좋겠지만 동의하지 않으셔도 저는 계속 글을 써내려 가려 합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학교를 다니는 우리 초·중·고등학생 아이들을 ‘성적이 행복을 좌우한다’고만 생각하는 그 불행의 늪에서, 대학생들을 ‘좋은 대학이 행복을 좌우한다’고만 생각하는 그 불행의 늪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대기업 등 좋은 직장이 행복을 좌우한다’고만 생각하는 그 불행의 늪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어른들을 ‘경제적 부, 사회적 지위와 남들에게 인정받은 것이 행복을 좌우한다’고만 생각하는 그 불행의 늪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스스로 웃지 않는 리더, 남을 웃기지도 못하는 리더, 전혀 행복해 보이지도 않는 리더, 성과만을 강조하다가 달성하지 못하면 짜증을 내고, 달성하면 더 높은 성과를 제시하면서 즉시 다른 사람들을 다그치는 리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은 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 혹시 여러분이 그런 리더였다고 생각하신다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이제부터 행복한 사람이 되면 되니까요.

이제 글을 마무리 할 때가 되었네요. 조금 아쉬우신가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준비했답니다. “행복한 사람이 남을 괴롭히거나 다치게 할까요. ①그렇다 ②아니다”, “행복한 사람이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할까요? ①그렇다 ②아니다” 눈치 채셨군요. 그렇습니다. 제 객관식 문제의 답은 언제나 ②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맞다면, 여러분이 행복하셔서 저는 마냥 행복합니다.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글을 통하여 여러분의 행복을 빌 수 있어서 저는 마냥 행복합니다.

기 고

박 대통령 ‘공익’은 챙기셨나요?

정 철 웅
광주환경운동연합 고문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에서 정치 경력 18년 동안 ‘사익’을 결코 챙기지 않았다고 확언했다. 그러면 공익과 공약은 잘 챙겼을까. 결코 아니다. 우리 사회 99%에 이르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민 그리고 기업들만이 사익을 챙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터를 지키면서 대한민국을 지탱해왔다.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들이 아닌 공공조직을 적법하게 지휘 통솔하여 ‘공익’을 챙겨야 했다. 대통령이 공익은 물론 공약도 제대로 못 챙긴 것을 일곱 가지 사례로 정리해 본다.

우선 4년 전 당선소감으로 ‘국민행복시대’ 도래를 밝혔다. 자신의 말처럼 사익을 결코 안 챙겼는데도 오히려 왜 ‘국민고통시대’가 도래했을까. 둘째, ‘100% 대한민국’이란 국민상생의 공익가치를 자주 설파했는데 소위 ‘금수저’로 지칭되는 ‘1% 대한민국’이 되었고, 최근 지지율로 따지면 ‘5%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셋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정착해 ‘통일 대박’을 열창했는데 개성공단 강제철수와 사스배치 등으로 ‘통일 쪽박’에 이르게 됐다. 넷째,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경제 활성화’로 바꾼 것까지는 그럴듯했었는데, 이제 ‘경제갑질화’만 만연해 양극화가 훨씬 심화한 상황이다. 다섯째, 재벌기업을 총동원해 ‘창조경제’라는 심오한(?) 깃발을 전국 방방곡곡에 꽂고 밖으로는 각국 정상들에게 경제묘약이라고 자랑했는데 결국 재벌의 뒤통수를 치는 소위 ‘삥땅경제’가 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여섯째, ‘문화융성’이라는 공익가치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옮겨갔고, 회심의 국정교과서는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라는 지적만 난무하고 있다. 문화·역사·철학의 가치를 대통령 권력으로 획일화시키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의 격을 떨어뜨렸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공약은 세월호 참사(2014년)와 메르스 사태(2015년) 그리고 AI무차별 확산(2016년) 등으로 초기대응능력이 부실했음이 또다시 들통났다. 이 결과 소비경제가 극도로 위축돼 국민안전은커녕 국민경제 최대 침체요인이 되고 말았다.

이상 일곱 가지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박 대통령이 공약과 공익가치를 훼손한 상황을 총칭해 세 글자로 ‘헬(Hell)’조선이라 하고, 네 글자로 절벽사회(취업절벽, 소비절벽, 투자절벽, 소통절벽, 출산절벽 등)라 하고, 다섯 글자로 ‘이게 나라냐’고 한다는 것을 박 대통령과 부역자들만 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에 촛불민심이 들불처럼 번져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니 이를 일곱 글자로 ‘박근혜 자진하야’라 하고, 아홉 글자로 ‘촛불민심 대통령 탄핵’이라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나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날을 새고 있다는 비보만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박 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자진 하야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고 ‘국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천일의 세월에도 떠오르지 않는 세월호 진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일로 정확히 1000일이 됐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세월호는 아픔을 상징하는 고유명사가 돼 유가족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다.

1000일이 지났지만 세월호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선체 인양이 이뤄지지 않았고 침몰 원인과 이후 정부 대처에 대한 정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선실세의 국정 농단 치부를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가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의 행적이 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주말 촛불집회도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진상 규명과 조기 인양을 촉구하는 자리가 됐다. 광주 금남로에서는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 상주모임이 주축이 돼 도보순례를 했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선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생존한 단원고 학생들이 공개석상에 나서 세월호 인양과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참사 1000일을 계기로 유가족은 물론 국민이 입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 시작은 선체 인양과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 현재 인양 공정률로 볼 때 온 3월 중순께 선체 인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탄핵 심판 및 대선 정국과 맞물려 인양 시기가 정치적으로 조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인양된 선체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대통령 7시간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침몰 원인과 정부 대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정 농단 특검 조사와는 별도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 지난해 9월 활동이 종료된 세월호 특조위를 새로 꾸려야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제2기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세월호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다.

줬던 돈 다시 내놓으라니 농민은 속이 탄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농민에게 판매 예상가를 추산해 우선 지급한 돈을 일부 돌려받기로 했다고 한다. 농민에게 미리 지급했던 우선지급금과 실제 매입가에서 발생한 차액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공공비축미나 시장 격리곡을 매입할 때 현장에서 지급한 돈이다. 이 돈은 지난해 8월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 93% 수준인 4만5000원에 책정됐다.

그러나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 가격은 4만4140원으로 확정됐다. 결국 포대당 860원의 차액이 발생했고 농민들은 이미 받은 돈 가운데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등급별 차액은 특등 890원, 2등 820원, 3등 730원이다. 전국적으로 환수 금액은 모두 197억2000만 원, 농가당 7만8000원 가량이다. 전남에서만 6만1000 농가가 49억 원 가량을 반납해야 할 처지다.

가격이 잘못 책정되었으니 차액을 돌려받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언뜻 들으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선지급금 제도는 시장의 활성화가 아니라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부 정책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우선지급금의 가격을 기존의 산지 가격 90%보다 조금 놓은 93%로 결정한 것 역시 정부였다. 당시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생색을 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뺏어가겠다는 말인가.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쌀값에 한숨 쉬는 농민들을 다독이지는 못할 망정 우는 아이에게서 사탕을 뺏어서야 되겠는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농가별로 반환 금액을 정하고 2월부터 농협을 통해 돈을 환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연히 농민들은 반발할 것이고 이와 관련해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토해 내라니 농민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無 等 鼓

야누스

1월을 의미하는 ‘재뉴어리’(january)는 로마신화의 야누스(janus) 신에서 나왔다. 야누스의 달(月)을 뜻하는 야누아리우스(januarius)에서 유래한 것이다.

월의 명칭으로 쓰이는 단어들은 모두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이거나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1월을 상징하는 야누스 신만은 유일하게 그리스와 상관없이 로마신화에만 거론되는 로마인의 신이다.

야누스는 주로 집이나 도시의 출입구 등 문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문의 방향은 두 개이므로 얼굴도 양면을 바라보는 신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야누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많이 쓰인다. 끝과 시작, 성공과 실패, 과거와 미래 등의 개념을 갖게 된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문학에서는 인간의 이중적인 면을 뜻하는 단어로까지 확장됐다. 특히 시작과 출발의 신이 되면서 로마인들은 ‘시작이 좋으면 1년이 좋으리라’는 생각에 야누스를 1월의 달력에 모시게 된 것이다.

야누스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라티움이라는 곳을 다스릴 때가 있었다. 그는 백성들에게 많은 기술을 가르치고, 야만적 생활을 벗어나게 해 주었다. 그래서 큰 존경을 받았고 죽은 뒤에는 신으로 추앙받았다고 한다. 그는 죽어서도 로마를 지켰다. 사비니족의 침공으로 로마가 위기에 빠졌을 때, 뜨거운 온천수를 분출시켜 적들을 물리쳤다.

이 기적을 기려 로마인들은 야누스 신전에 문을 세우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신에게 도움을 청했다. 즉 문을 열면 전쟁을 치러야 하니 신께서 나와 도와주시라는 뜻이고, 문을 닫으면 평화로우니 쉬시라는 의미였다. 여기에서 ‘열린 문’은 전쟁을, ‘닫힌 문’은 평화를 상징하는 말이 됐다.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면 끝날 것만 같았던 촛불집회는 아직도 토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열리고 있다. 촛불은 국민의 요구와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현 정권을 과거의 실패로 규정하고 미래를 밝히려는 외침이다. 올 1월은 ‘재뉴어리’에 담긴 의미대로,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좌초된 대한민국호가 새로운 항해에 나서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